

‘120조 반도체클러스터’ 힘 싣는 이재명... “경기도가 최적”

이재명 지사 반도체클러스터 입장

“경제논리로 판단하고 결정돼야” 대기업·중소간 상생클러스터 지역사회 복지 향상 등 청사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20조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SK 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입지는 경기도가 최적이라는 입장을 냈다.

이 경기지사 18일 도청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입지는 정치논리가 아닌 경제논리로 판단하라”며 “경기도가 반도체 클러스터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현재 경기도에선 용인시와 이천시가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전에 나선 상태다.

이 지사는 “기업경쟁력 확보 차원을 넘어 국가 미래 먹거리와 직결된 매우 중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로써 경기도의 장점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사안이므로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는 실사구시적 입장에서 정치 논리가 아닌 경제 논리로 판단되고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는 기존 반도체의 장점을

결합한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의 ‘중심기지’ 건설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해 왔다”면서 “경기도는 정부에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지속해서 건의했고 그 결과 올해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반영됐다”

고도의 노력을 강조했다.

이 지사의 이런 발언은 이른바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는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를 놓고 경기도 용인과 이천, 청주, 구미 등이 총력전을 전개하는 와중에 나온 것이다.

그는 경기지역 유치에 대비해 도가 마련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핵심 내용도 소개했다.

이 지사가 밝힌 도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 계획은 ▲대·중소기업 상생클러스터 조성 ▲스타트업 및 전문 인재 육성 ▲지역사회 복지 향상 ▲복합스마트 시티 조성 등 모두 4가지다.

도는 먼저 국내 반도체 부품·소재·장비의 국산화율이 낮다는 점을 들어 대·중소기업이 함께하는 상생하는 클러스터 조성과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우수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클러스터 내 기업이 함께하는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협력사 구성원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시설 확충, 어린이·청소년 교육프로그램 운영, 어르신 돌봄 서비스 등도 제공하기로 했다.

반도체 클러스터를 일자리와 주거·문화·교육이 함께하며 에너지 절감과 환경, 안전, 교통을 첨단기술로 관리하는 복합스마트시티로 조성할 방침이다.

이 지사는 “정부의 역할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환경을 만들어 기업이 경쟁력을 키우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라며 “경기도는 일자리 창출과 함께 기업과 산업 경제가 지속해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김승열 기자 kimsy@metroseoul.co.kr



지난 15일 진행된 ‘SPC해피버스데이파티’ 행사에서 SPC그룹 임직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SPC그룹

SPC그룹 경남 아동센터서 ‘해피버스데이파티’

케이크 만들고 학용품 등 선물 전달

SPC그룹의 SPC해피봉사단이 ‘SPC해피버스데이파티’를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SPC해피버스데이파티’는 매일 지역 아동센터 100곳을 선정해 생일케이크를 지원하고, 그중 한 곳을 SPC그룹 임직원과 파riba게트 파티시에, 가맹점주가 직접 찾아가 케이크만들기 교실을 열어주

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SPC해피봉사단은 생일 케이크 지원 이외에도 아이들에게 위시리스트(wish-list)를 받아 학용품 등의 선물을 전해주고, 파riba게트 파티시에와 함께 직접 케이크를 만들어보는 등 행복한 시간을 가졌다.

한편 SPC그룹은 SPC해피버스데이파티 사업을 통해 2012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6500여개 아동복지시설에 케이크 1만8000여개를 지원했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

‘믿고 사는 전북 농산물’... GAP인증 확대

전북 안전농산물 공급에 17억 투자 GAP인증 컨설팅·관리자 역량 강화

전라북도 GAP인증 관리에 내실을 기하기로 했다.

GAP(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이란 용수와 토양 등의 농업환경과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중금속·유해 미생물 등 위해요소를 생산단계부터 수확, 수확 후 관리와 유통의 각 단계에서 안전하게 관리하는 제도다.

전라북도는 시중에 유통되는 도내 농산물의 안전 관리와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하는 ‘믿고 사는 전라북도 농산물’ 확대를 위해 올해 17억원을 투자한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GAP인증 컨설팅과 농산

물 품질관리자 역량강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도내 GAP인증의 지속적인 확대와 인증농가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로 소비자의 ‘안전 농산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GAP인증 심사원 자격 교육을 오는 19일부터 4일간 실시한다.

대상은 시군 조공법인과 지역농협의 농산물 품질관리 실무자이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협의를 통한 도단위 현장실무자 대상 GAP자격취득 교육은 전국 최초이다.

이번 교육은 수수료 평가를 통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발급되는 수수료가 수여된다. 교육수료자는 농업현장에서 GAP인증기준에 맞춘 농가 컨설팅과 농산물 품질관리 및 유통을 담당한다.

전라북도의 GAP 인증농가는 2019년

1월말 기준 1만401농가이며, 인증면적은 1만3천601ha로 전국의 13%를 점유한다.

올해 GAP 인증을 받기위해 컨설팅 지원사업을 신청한 농가는 807농가로 쌀 이외에 과채류와 과일의 인증면적을 늘리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GAP 농산물이 그 답이 되었고, 올해 역점으로 추진하는 공공급식과 학교 과일간식도 안전성이 확보된 GAP농산물을 공급할 계획이다”며 “농업현장에서 GAP인증제도의 정착을 유도하고, 적극적인 안전농산물의 홍보를 통해 GAP농가의 소득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봉태영 기자 bcy2020@

초행길도 쉽게... 도로명 표지판으로 교체

남원시 도로안내판 11곳 정비

남원시는 지난해 지자체 평가 우수인센티브 2000만원을 들여 초행길도 쉽고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지명위주 도로안내판 11곳을 도로명 안내방식의 도로 표지판으로 교체 정비했다.

남원시는 이와 함께 올해는 시내권 도로 표지판 117개소를 교체 정비할 계획이다.

도로표지판을 도로명 안내방식은 주요 공공시설 및 관광지를 중심으로 표지를 간소화해 안내정보의 연속성뿐만 아니라 운전자도 쉽고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 남원=봉태영 기자



인천시, 3·1운동 100주년 기념 사업 ‘풍성’

인천항 등 독립운동 장소 정비하고 역사 의미 되새기는 학술사업 추진

인천시가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선열들의 독립운동과 인천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이번 제100주년 3·1절 기념행사를 참관만 하던 기존 기념식에서 벗어나 시민 모두가 다함께 100년 전 그날의 현장에서 송고한 정신을 기릴 수 있도록 동구와 공동으로 3·1운동의 발상지인 창영초등학교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창영초교는 1919년 3·1운동 당시 인천에서 처음 만세운동이 시작된 곳이다.

시는 모든 시민들이 역사적인 순간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학생과 시민 100명의 소장품을 사전에 받아 타입 캡슐에 넣어 묻는 사전행사를 기획했다. 또 시민사회단체가 직접 ‘시민 주권 선언문’을 작성 및 발표하고, 모든 시민이 3·1운동 정신을 재현하는데 동참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의 장을 열 계획이다.

‘시민 주권 선언서’는 시민의 힘으로 지켜온 지난 100년의 역사를 바탕으로 미래 100년은 시민이 주인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비전과 가치를 담아, 인천지역 22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시민정책 네트워크에서 직접 만들어 발표해 그 의미를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또 인천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의미를 연구하고 되새기는 다양한 학술 사업을 추진한다.

인천은 이민역사의 출발지로 해외 이민자의 아픔과 고통이 서려있는 곳이며, 만국공원(현 자유공원)은 3·1운동 직후인 1919년 4월 전국 13도 대표들이 모여 임시정부수립을 결의한 장소로 이후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세우는 기초를 마련한 장소다.

자유공원, 인천항 등 독립운동가의 피땀이 밴 인천의 역사적 장소에 대한 정비 사업과 시민들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사업도 활발하게 추진된다.

김구 선생이 투옥됐던 인천 중구 신포로 일대에는 백범을 기리는 청년 김창수(백범 김구) 역사거리가 조성된다.

/인천=최영주 기자 choiyj@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7:18 | 해질 / 18: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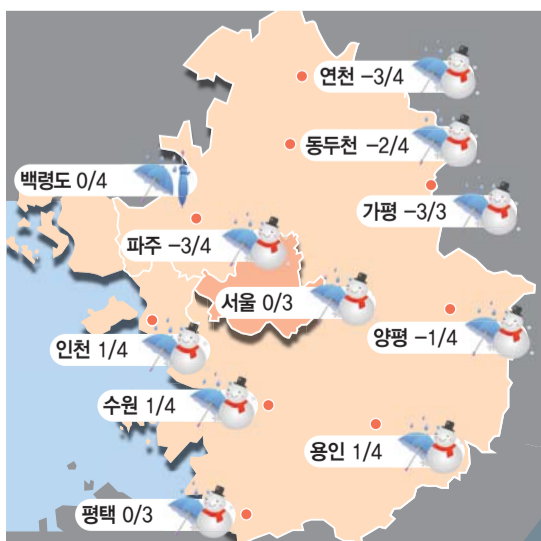
2월

19일 (화)
음력 : 1월 15일

수도권 날씨

0 ~ 3℃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광주시 북구 신학기교복 부담 덜다 ‘교복 나눔장터’ 개최

광주시 북구가 신학기를 앞두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일 북구청 3층 회의실에서 ‘2019 교복 나눔 장터’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를 위해 북구는 관내 중·고등학교 자녀를 둔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복, 체육복, 책가방 등을 북구청과 동행정복지센터에서 기증받았다. 셔츠·블라우스·바지·치마·조끼는 2000원, 책가방·실내화는 3000원, 재킷은 5000원에 각각 판매한다. /광주=봉태영 기자